



박충의 히든스토리

"대통령 한번 허구야 그만둘 생각입니다"

"국장님! 저 지금 현대 직원들에게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느곳에 감금되어 있다는거야?" "63빌딩 예식장 옆방입니다" 지금부터 꼭 20년전 1995년 8월 19일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총수 정 주영 회장의 손녀 정 은희양의 결혼식을 취재갔던 J기자의 다급한 전화내용이다. 평소 같으면 재벌의 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기사가 안 될 것이지만 1982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정회장의 장남 정 몽필사장의 딸 결혼식이고 당시 대통령인 YS를 92년 대선에서 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맞붙어 YS의 애를 많이 먹인 정 주영회장! 그래서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회사공금 횡령혐의로 징역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정계와 현대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칩거 근신중에 있던 정 주영씨가 손녀 결혼식에 참석하리란 예측을 하고 영상취재부 독자적으로 J기자를 현장에 내보냈는데 무슨 이유에 선지 현대직원들에게 J기자가 감금되어 있다는 전화가 온것이다 '아! 무슨 소리야 현대직원이 뭇 때문에 너를 감금한 거야? 이유가 있을 것 아냐?' "정회장 취재한 테잎을 내노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 인터뷰 내용이 무엇인데?" "정회장이 피로연장에 혼자 앉아 있길래 회장님 정치를 다시할겁니까?하고 질문했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정치는 대통령을 한번 허구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들은 현대 직원들이 지금 테잎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입니다" J기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감전된 듯 전율을 느꼈다. 특종은 특종인데 우선 현대 직원들로부터 J기자를 빼오는 것이 가장 급 선무이고

빠내온 다음에 이것을 방영했을 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을 생각하니 솔직히 이야 기해서 괜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아! 절대로 테잎 뺏기면 안돼! 그리고 현대직원에게 이야기 해, 그곳 책임자에게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63빌딩으로 우리 기자들을 보내서 J기자를 구출(?)할까 궁리 중인데 전화벨이 울렸다. '박 형! 나요! D일보 출신인 언론계 선배인 P형이었다. '박 형! 나 좀 살려 주시요, 노인네가 아무 생각없이 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방송나가면 YS가 가만 있겠어요? 우리 현대는 문 닫아야 돼요! 박형이 하라는대로 다 할테니 제발 방송이 안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P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사를 안 쓸겁니까? 선수끼리 일을 어렵게 하지마시고 우선 J기자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와 우리 데스크와 테잎을 보고나서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안 내겠습니다. "알았어! 박 형 잘 부탁해!" 하면서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15분후에 J기자가 석방(?)되어 왔다. 보도본부 전 데스크가 모여 테잎을 틀었다. "정치는 대통령을 한번 허구야 그만둘 생각입니다" 녹취도 잘 났고 화면도 선명하다 본 사람 모두들 의견이 난무한다 방송내자! 내서 도움이 무엇이 되겠냐? 그러나 결과는 방송을 내지 않았다. 방송이 났을 때 국가적으로 이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생각해도 방송을 안 낸 것이 난잡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옐로우 언론이 판치는 것을 보며 그래도 그때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방송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본다.

사 | 우 | 동 | 정



신영균(명예교문) 지난6월 25일 TV조선 인물탐구에 출연해 그의 삶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고문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걸어오며 쓴 세상 이력서를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송경철(아나) 지난 4월 YTN 정기 인사에서 앵커실장으로 승진 했다. 신뢰감 있는 뉴스 진행으로 YTN 대표 앵커로 활동하고 있다.



배철호(제작) MBN 제작본부장(상무)으로 선임되어 7월부터 방송현장으로 복귀했다. 배사우는 진정성있고 공감되는 스토리를 발굴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현철(보도) 지난 4월말 한국 지역 민영방송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KBC 광주 방송사장으로 취임한 양사우는 지역 문화창달과 언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윤표(라디오) 지난4월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전무이사로 취임했다. 이 협회는 작곡,작사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제2 저작권협회로 지난해 설립됐다.



벽걸이 달력 6장이 넘어갔다. 후딱 절반이 지나가도 세월의 공허로움을 느낄 사이가 없다. 거시기 리스트 확산(?)에 이어 메리스 확산 앞에서... 사우회 동호회도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었다. 사우회 사우들이 무탈한지라 다행이다. 봄을 건너 뛰어 바로 여름이 된 날씨, 이럴 땐 물 많이



김형민(보도) 지난 5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언론홍보활동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다. 김사우의 언론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수원 언론 홍보 역량이 발휘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설(기획) 최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 드라마 제작사 '조이플파트너'를 설립하고 올 하반기에 방영될 드라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벽수(보도)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국제대학스포츠포럼<영리포터> 프로그램 멘토로 활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국내외 학생기자들에게 취재활동을 지도하는 멘토링이다.



김수동(드라마) 지난 4월 13일 (주)씨엔터치 부회장으로 취임해 활동중이다. 이 회사는 드라마 외주제작사에 자금 지원과 자문관리를 위해 드라마 기획 연출자 출신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곳이다.



류지현(아나)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국외보도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다. 외신 보도 관계협력지원, 메인 기자회견 진행 등을 맡게 된다.

먹는 게 최고라고 한다. 인사 때 물먹여 본지 가물가물 한데 "이선배님도 물먹으시고 김후배님도 물먹어!" 여름에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말함 일거다. 건강하게 여름을 이별하고 가을 사우회 창립일에 사우님 전부가 참석하길 희망해본다. 흔한 말로 '아직도 절반이 남았어?' 라는 긍정의 힘으로 남은 여섯 달도 절반의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5년 7월 1일 제35호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김수웅 편집인 박동주 주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활발한 재능기부

자유학기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지원

SBS 사우회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같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SBS사우회, SBS홀딩스, 서울시 교육청 3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15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사업 첫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소재 상경중학교를 시작으로 서울의 여러 중학교 학생들이 SBS 목동 사옥을 방문해 방송시설을 둘러보며 직업체험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뉴스 스튜디오를 비롯해

라디오센터, 삼양동 프리즘타워 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자유학기제 멘토를 맡은 사우회 김벽수 부회장은 학생들의 질문을 자세히 설명해 방송사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오는 9월과 10월에 있을 하반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사업에도 사우들이 계속 멘토로 나서게 됨에 따라 SBS 사우회 재능기부 활동이 자리잡아 가고 있어 점점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3일에 개막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16명의 사우들이 방송 현장매니저로 참가해 방송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 무의도로 가는 선박의 갑판 위에서... '바로 저기네'

섬에서 만나다

신록의 힐링, 무의도 आयुही

'하늘도 맑고 갯바람도 싱그러운 섬에서 옛동료를 만나 회포를 풀니 찜든 마음이 말끔히 씻어진 기분입니다' SBS 사우회는 지난 5월11일 봄철 나들이 행사를 인연 앞바다 무의도에서 가졌다. 이 날 나들이에 참석한 70여명의 사우들은 소무의도 인도교를 건너 2.5km 바다누리길 트레킹을 끝낸 후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오찬과 여흥을 즐겼다. 김수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에서 가까운 섬에 배를 타고 건너오니 아주 먼곳으로 आयुही 온 느낌이 든다면서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도심의 일상탈출을 즐기자는

건배를 제의했다. SBS 사우회 आयुही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여흥시간에는 박영호,최상담 사우의 색소폰 연주와 사우들의 노래 자량이 펼쳐져 웃음꽃이 만발 했다. 특히 최상담 사우는 노래방 기기와 색소폰 연주라이브 장비를 가져오는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아 찬사를 받았다. 사우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받은 사우들은 연말의 송년회 재회를 기약했다. 한편 이날 आयुही를 위해 SBS A&T와 SBS 미디어크레이트는 협찬금을 진로주조 이승렬 사우는 지난해 आयुही에 이어 이번에도 풍성한 주류를 지원했다.

너 섬 나 섬

— 사우들의 활발한 재능기부, 배운 도둑질 쓸 곳 없을 때 제대로 쓰면 빛나는 봉사활동인데 누가 막으리요

— 사우회 무의도 나들이, 오랜만에 옛 동료 해후하니 무의대교가 오작교로 변한 여느 때 보다 풍성한 आयुही, 설마 주회 측에 आयु 보낼사람 있을까?

— 요산요수회 대마도 힐링투어, 가는 곳마다 조선의 흔적 남아있으니 대마도는 우리 땅(?) 선견지명은 차치하고 바둑의 대마불사만 알았더라도...

— 동호회 활동 일시 중단. 노병들에게 취약한 메리스 차단을 위한 사우회의 발빠른 조치 방역만점이요, 이참에 청년 취업문이 닥타 메리스 구멍 뚫리 듯 하면 좋을 텐데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따라

요산요수회 대마도 트레킹

사우회 요산요수 동호회는 지난 5월14일 대마도에서 트레킹을 겸한 힐링투어를 가졌다.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역에서 KTX 편으로 이동해 부산항을 떠난 20명의 사우들은 옛 조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발자취를 따라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아름다운 섬 대마도를 일주했다.

멀리 부산이 보이는 한국전망대 조선역관 사순난지비를 비롯해 조선통신사비가 세워진 대마역사민속자료관,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등을 살펴보고 이즈하라 항구 인근의 आयु모도시 자연공원을 트레킹 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중국이 뜨겁다

시청률 끌고 달리는 <런닝맨>



▶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의 한 장면

중국 방송사들과 공동제작한 SBS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본토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 시즌2의 경우 시청률 5%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인종마크, 현상급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금요일에는 중국인들이 일찍 귀가하고 직장교 학교 등 각종 모임에서는 이름표 떼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중국 방송관계자들과 학자들도 중국 방송사상 전무후무한 시청률과 사회적 이슈를 만든 건 SBS가 처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같이 SBS 프로그램이 중국과 공동제작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런닝맨의 메인 PD와 작가, 스테프들이 전원 투입되고 철저한 현지 본토화 연구로 중국인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스토리를 개발하는 등 SBS만의 차별화 된관 전략전술이 통했기 때문이다. SBS는 중국 현지에서 SBS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SBS 社友漫評



“두려움 없이 떠나라!”

www.mediacreate.co.kr (02) 6262 - 2800

SBS Media Group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모두와 함께 가는 미디어 세상~ 미디어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 갑니다.
단순한 매체 대행을 넘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미디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까지
고객과 방송사는 물론 시청자,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미디어 세상을 열어갑니다.

Grow up together

MEDIACRE8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는 국내 최초 민영 미디어랩으로서 TV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적의 미디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야유회 화보>



방송3사 바둑대회

KBS 우승

2015 춘계 방송3사 사우회 친선바둑대회가 지난 4월23일 서울 정동 MBC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가을 KBS 사우회 주최로 처음 열린 후 MBC가 주최한 이번 친선대국에서 KBS가 최고위전에 우승을 차지 했으며 작년에 우승한 SBS 사우회는 친선대국 성격의 대표전에 사우

회 김수웅 회장과 박성원 사우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 했다. 오는 10월로 예정 된 추계 친선바둑대회는 SBS 사우회 주최로 열리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29일에 열린 바둑동호회 춘계대회에서는 A조의 박광호, B조의 엄광석사우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사우회 상반기 신규 회원가입자>

권영화(A&T제작기술팀)/김성락(미술부) 김해근(경영지원팀)/김호남(시설팀) 박성규(R기술팀)/박임실(A&T아트3팀) 박 종(드라마본부)/서득원(A&T영상제작팀)/신연훈(제작본부)/안창균(아카데미부)

이선용(윤리경영팀)/이영철(A&T영상제작팀)/이재모(A&T영상제작팀)/정철민(인프라관리팀)/조도진(A&T중계기술팀)/하남신(보도본부)

<여름 피서지 추천> 글 / 이시권



원시림의 자연, 곰배령

강원도 인제군에 가면 1,424 미터의 점봉산(點鳳山)이 있다.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주 보는 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산을 오르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지 않는다. 인제군 귀둔리 곰배골 마을에서 진동리 설피 마을로 넘어가는 곰배령 고개가 점봉산에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길이 잘 발달된 운두령, 진부령, 미시령, 대관령, 한계령 같은 고갯길과 달리 설악산 마등령처럼 걸어가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곰배령을 지난 말 1박 2일로 다녀왔다. 곰이 배를 하늘로 향해 누워 있는 형상이어서 이름 붙여진 곰배령. 1,164 미터의 정상은 수천 평에 달하는 초원에 하양, 노랑, 빨강의 작은 들꽃들이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고 있었다. 드라마 제목처럼 <천상의 화원>을 곰배령은 연출하고 있었다. 하루 탐방객 300명으로 제한 된 곰배령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만 한다. 게다가 입산이 허락된 시간까지 지정 받아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했다. '산림유전자원보존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니 오히려 선택받은 기쁨이 따른다. 올라가는 내내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발걸음에 음률을 붙여 따라 온다. 아무리 깊은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다는 계곡 주변에는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알레지, 매발톱, 현호색, 동자꽃 정도는 이름을 익히 알고 있지만 한계령풀, 홀아비바람꽃, 노루오줌, 미나리아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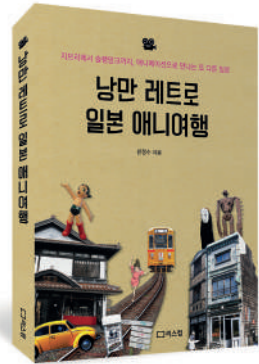
<사우가 펴낸 책> 윤정수 사우

'낭만 레트로 일본 애니여행'

일본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르는 '애니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이다. 그래서인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랑도 대단하다. 일본 곳곳에는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볼거리 역시 넘쳐난다. <명탐정 코난>을 쓴 아오테 고쇼의 기념관, <우주소년 아톰>을 쓴 테즈카 오사무의 기념관 등 일본은 어딜 가나 상상의 세계와 현실이 함께한다. 라디오 PD 출신 윤정수 사우가 만화 마니아라면 누구나 꿈꿔만한 이런 여행지를 한 권의 책 속에 담았다. <낭만 레트로 일본 애니여행>이라는 색다른 책이다. 이 책을 펼쳐 숨은그림찾기 하듯 애니메이션 속에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면 그 재미가 쏠쏠하다. 혼자 애니메이션의 배경지를 걸으며 낭만에 빠지거나 친구와 추억을 나누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과 애니메이션 속 배경지는 책에서 더욱 자세하게 소개되어 여행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이웃집 토토로>의 배경 후치의 숲,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를 따온 다테모노엔, <코쿠리코 언덕에서>의 마을 요코하마 등이 그곳이다. 애니메이션 명소와 묶어서 가면 좋을 만한 주변 관광지도 함께 넣었다. 각 장의 시작



<협찬금 내신 분>



털이풀, 초롱꽃은 카메라에 담으면서 야생화 상식을 보태게 된 경우다. 곰배령은 인제군 진동리 강선골에서만 볼 수 있다. 서울에서 200Km 달려가 도착한 펜션에 여장을 풀고 다음 날 아침 9시, 10시, 11시 세 차례 중 자신이 신청한 시간에 입산하거즘을 받는다. 등산화 끈을 여미며 가벼운 흥분을 눌러 본다.



정상까지 5 킬로미터를 다녀오는데 4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정상 부근만 약간 가파를 뿐 경사가 완만해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 생각해도 무난하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은 소박한 원시림을 간직한 곰배령. 그곳에 가면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자연을 왜 그리도 강조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자연 그대로여서 숲이 좋은 건지, 숲을 잘 간직해서 자연이 살아났는지? 살아있는 자연 원시림 곰배령은 이 두 가지 명제를 한번에 대답해 주고 있었다. 사우 여러분들께 올 여름 휴가지로 곰배령을 권하고 싶다. 먼 길 찾아간 수고가 아깝지 않은 곰배령의 진면목을 적절히 표현해 내지 못함을 해방하시길...^^

<야유회 참가기> 글 / 정윤철

무의도의 다리는....

인천 앞바다 무의도로 향하는 버스 안은 화기애애 했다. 사우회 비밀금고에 불로 장생수를 숨겨놓고 복용하느니지 오랜 만에 대하는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옛 모습 그대로였다. 사우회 입사(?)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야유회,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의 추억을 떠올릴 사이도 없이 '갑박과 사이다가' 아닌 입가심용 캔맥주와 땅콩이 제공되면서 이미 흥겨운 전반기 게임이 시작 된 듯 했다. 뒷자리에서는 성급하게 막걸리 찾는 소리도 들렸다.

공황고속도로 차창밖에 펼쳐지는 신록을 바라보자 왕년의 신록, 젊은 날이 떠올랐다. 친구와 느닷없이 고래 잡으러 가자며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술고래만 잡은 어느 해 한 여름 밤 추억을...

버스는 무의도로 가는 배에 실리자마자 10분 만에 섬에 이르렀다. 바닷가 외딴 섬의 환상을 이미 내려놓은지라 별 기대는 안했는데 섬 안으로 들어와 무의도와



<배철호의 음악기행>

바람, 파도 그리고 파두(FADO)

영화 좋아하는 사우들은 다 봤을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 중후한 매력의 제레미 아이언스가 우연히 한 권의 책과 한 장의 열차 티켓을 발견한 뒤 운명적인 끌림으로 리스본으로 향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여정을 담았고 고풍스러운 스위스 베른과 매력적인 포르투갈 리스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올해가 결혼 30주년이어서 조금은 색다른 행선지를 찾아볼까 고민하던 중 어느 영화채널에서 방영되는 이 영화를 보다가 "아 이 곳이야!"라는 순간적인 결정을 했고 5월 어느 날 우리 부부는 리스본 행 야간열차가 아닌 야간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늘 하고싶은 얘기는 우리 부부의 여행얘기가 아닌 리스본에서 다시금 마주한 포르투갈의 대중적인 음악 파두입니다. 1987년 무려 7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광영범사우가 연출한

드라마 "사랑과 야망"을 기억하시나요? (2006년에 SBS에서 리메이크) 그 때 여주인공 차화연이 나올 때 흐르던 테마곡, 포르투갈의 국민배우이자 가수인 아말리아 호드리게스(Amalia Rodrigues)가 부른 "어두운 숙명(Maldcao)"입니다. 무슨 운명이, 무슨 저주가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헤어져 방황하게 하며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침묵한 두 울부짖음 서로 엇갈린 두 운명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연인 나는 그대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갑니다. 그대를 만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정말 가사내용이 애절합니다. 명색이 쇼피디 출신인지라 그 파두를 느끼기 위해 열심히 물어 리스본에서 잘한다는 파두 의집(casa do fado) 두 곳을체 이틀씩이나 거금을 들여서 방문했습니다. 저녁과 함께 한다해서 우리식으로 극장식

◇ 경조사

축하합니다

김광진 장남(4/11)	정영철 장남(5/9)	손광덕 장녀(6/20)
김충겸 장남(4/18)	성준기 아들(5/16)	손석기 장녀(6/21)
조태현 아들(5/9)	이제권 장녀(6/6)	

애도 합니다

박상수 부부상(4/20)
안경환 모친상(4/28)
정영희 부친상(6/9)
김한옥 모친상(6/13)

<대마도 탐방기> 글 / 황효선

'지을 수 없는 Why'

요산요수회 회원들 20명이 부산행 KTX 첫차에 몸을 실으면서 1박 2일의 대마도 트레킹 여행이 시작 됐다.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시속 80km로 달려 대마도 히타카츠항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겨우 1시간 10분. 서울서 출퇴근 할 때 걸리는 시간 밖에 안 된다. 이렇니 날씨 좋은 날에는 부산에서 대마도가 육안으로 보인다 할 수밖에....

히타카츠항은 북적거리던 부산항과 달리 너무나 조용하고 한적하다. 대마도는 울릉도 10배의 크기에 인구는 겨우 3만 3천 명 정도란다. 그것도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라서 자위대까지 유지해 인구수를 유지하려고 애쓴다고 한다. 대마도의 98%가 산으로 이루어 졌는데 산세가 일본 본토와는 달리 한국의 산세모양이라 경여웠다. 우리나라의 거제도나 해저로 연결된 지형이라 본토와는 달리 지진도 화산도 없다고한다.

첫날 일정은 날씨 좋은 날 부산이 보인다는 <한국전망대>, 일본 100선에 든다는 <미우다하마 해수욕장>, 와타즈미 신사, 만제키 바시 등을 둘러봤다. 대마도의 아름다운 해안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연히 불만한 해변에는 횃집이나 카페들로



가득했을 텐데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천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이곳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낱은 역사자료관을 방문하여 조선통신사 비, 조선통신사들의 행적 등을 둘러보고 덕해옹주의 결흔봉추비를 찾아보았다. 덕해옹주는 고종황제의 고명딸로 13세에 일본으로 강제유학을 가서 그곳의 귀족학교에 다니며 왕따 생활을 하다 후에 대마도주와 정략결혼을 했으나 치매에 걸려 이혼을 당한 후 귀국하여 서울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니... 기구한 한 여인의 일생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짧은 1박2일의 여행, 요산요수회 첫 해외나들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Why 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대마도를 산 밖에 없고 농경이 불가능한 섬이라 여겨 버렸을까' 라는 의문부호다.

이다. 운명에 순응하는 인생관이 몸에 베인 포르투갈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파두는 '사우다지(Saudade)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사우다지는 우리의 '恨'과 흡사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2박자4박자의 단순한 것이 대부분이며 조성(調性)은 단조가 많고, 장,단조 모두 화성구조(和聲構造)는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미묘한 싱크페이션과 섬세한 가락으로 되어 있어 가수의 노래수씨에 따라 매우 풍부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 마지막 부분의 설명처럼 특히 여자 가수들의 묘한 바이브레이션은 포르투갈어 가사의 뜻을 모를에도 노래의 감정이 그대로 가슴속으로 와 닿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가슴속을 후벼 팝니다. 우리가 트로트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과 감성이 이 파두에서 그대로 전해오는 느낌입니다. 이 파두의 매력에 사우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고 꼭 써져보시길 바랍니다.



◇ 회비내신분

연회비(4월~6월)
김지혁 김현태 박광호 이두표 이수영 임경수 유재순 소속자 한두혁
총신회비(각30만원)
김성락 박성규 박임실 안창균 이영철 이재권 전윤표 정철민 조도진 김성우

◇ 회비안내

(총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30,000원 총신회비 : 300,000원
우리는행 계좌번호
회비 납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찬 회비 1005-001-954097